

제 278호 · 2014년 10월 15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파나마 운하 이용 컨테이너 선박 감소
2. UPS, 배송비용 절감위한 근거리 수배송거점 도입
3. 중국, 6개년 물류청사진 발표
4. 인도 카르나타카주, 민간투자 5개 신항 개발 예정

물류시장동향

1. 레닌그라드 주 항만, 러시아 총 항만 물동량의 24% 처리
2. 중국 텐진항, 안벽 확장계획 발표

공지사항

1. 한·러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 비즈니스 포럼
2. E-learning을 활용한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파나마 운하 이용 컨테이너 선박 감소

- 2014년 회계연도(2013.10.1 ~ 2014.9.30) 기간 동안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컨테이너선박은 총 2,891척으로 전년(3,103척) 대비 6.8% 감소함
 - 톤 기준으로는 2013년 117.6백만 PC/UMS(Panama Canal tonnes)에서 111백만 PC/UMS로 5.6% 감소
- 이에 따른 컨테이너선박의 통행료 수입도 2013년 951백만 달러에서 4.2% 감소한 911백만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전체 선박의 총 톤수는 2013년 32억 PC/UMS 대비 2.0% 증가한 33억 PC/UMS를 기록함
 - 이러한 총 톤수 증가는 주로 아시아-미주 걸프만 항로의 양곡 운송용 벌크 선박 이용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 이용 벌크 선박의 총 톤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
 - 반면, 2014년 전체 통과 선박수는 2013년 12,045척에서 0.7% 감소한 11,956척을 기록
- 확장된 파나마 운하는 2015년 4사분기 운영 예정으로 사상 최초로 12,6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통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아시아-미주 걸프만 항로에서 최근 수년간 수에즈 운하로 이전된 컨테이너 선박이 다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
 - 6년전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의 이용 비율은 90% : 10%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 비율은 50% : 50% 수준으로 변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파나마 운하 이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파나마 운하 확장 이후 이용 선박의 증가 예측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확장된 파나마 운하는 일일 평균 12~14척의 선박이 이용하여 혼잡이 예상되고 있고, 이용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적재화물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보험료 등의 증가로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12,600TEU급 선박이 적재한 화물의 평균 가치는 250백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오히려 수에즈 운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 : www.lloydslist.com, 2014.10.

김근섭 부연구위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UPS, 배송비용 절감위한 근거리 수배송거점 도입

- UPS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온라인 주문 물품의 배송실패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고객들이 가까운 상점이나 특수 라커에서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음
 - 특송회사들은 기업고객 대상의 대량화물보다는 화물의 크기가 작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송비용을 지출하는 온라인 쇼핑 거래 화물 문제로 고심하고 있음
 - 특송회사들은 화물을 구매자에게 재배송하는 경우 화물 처리비용이나, 연료비, 노동력이 추가되지만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없음
 - UPS의 Steve Gaut 대변인은 “배송기사당 단 1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천 5백만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 또한 UPS는 “UPS My Choice”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고객이 5달러의 수수료를 추가지불하면 배송경로의 변경이나 스케줄 변경이 가능하도록 옵션을 제공키로 했음
- 지난 7월 UPS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쇼핑시즌 동안 배송의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1억 7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
 - UPS의 경우 지난해 쇼핑시즌 동안 극심한 겨울 추위와 집중된 주문에 따른 정시배송의 실패로 고객 불만이 증가했음
 - 펀드 평가회사인 모닝스타의 Keith Schoonmaker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특송회사의 전체 화물에서 B2C 거래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UPS뿐만 아니라 라이벌 회사인 FedEx도 미국 내 화물수취 거점의 중요성이 높아졌음
- UPS는 세계 최대의 특송회사로 전체 매출의 62%는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 Bigcommerce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이 2012년 약 1조 달러에서 2015년 약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 Fedex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UPS는 미국 내 1,800곳을 화물 수취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Dallas와 Memphis 15곳에 화물 수취용 라커를 추가했음
 - UPS는 New York과 Chicago의 세탁소, 편의점, 약국 등 약 300곳이 화물수취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중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화물 수취용 라커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 전자상거래 업체인 Amazon도 2011년부터 UPS와 유사한 화물 수취용 라커를 운영중임
 - Walmart 또한 지난해부터 Washington DC의 10개 점포에서 수취용 라커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음

- UPS는 내년 1월부터 미국 내 4,400개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해 화물 수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현재 유럽에는 약 12,000개에 달하는 수배송 거점이 있으며 2015년까지 유럽과 미국을 합쳐 약 2만개에 달하는 거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고객이 당장이라도 이용가능한 "UPS My Choice" 서비스는 향후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될 예정임

자료 : www.reuters.com, 2014.10.8.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중국, 6개년 물류청사진 발표

-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은 향후 6년간 중국의 물류 인프라 시설 및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음
- 중국 중앙정부 웹사이트에 발표된 2014-2020 물류산업 발전 계획은 중국내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
- 중국내 물류비는 중국내 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의 2배 이상 수준으로, 브라질,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수준임
 - 중국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하는 국제물류성과지수(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2014년 28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 중 말레이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임
 - 세계은행은 또한 국내물류 성과 관점에서, 운송 부문의 품질기준이 홍콩은 95%인데 반해, 중국은 7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물류비를 GDP의 16%까지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운송 및 창고 운영사들의 수직적 통합을 달성하고, 지역별 운송수단간의 협력을 권고하고 있음
- 물류 자문 기업인 M Power Associates의 Mark Millar 매니저는 “물류 발전 계획을 통해 중국의 경제가 소비 주도형 경제로 급속히 전환했으며, 이번 물류 발전 계획을 통해 물류의 첨단화를 비롯하여 무역과 상업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해져 중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공급망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국무원은 콜드체인(cold chain)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한 나라의 물류 고도화를 평가하는 3자 물류 서비스에 투자를 시행하는 동시에, 기업간 인수합병도 독려하고 있음
- 또한 텐진(Tianjin)항에 대해 기존 면적 3배에 달하는 1,590km² 규모의 인프라 확충계획을 승인했음
 - 71개 이상의 선석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며, 부두 길이는 현재의 두 배가 되는 148km로 확장됨
 - 다만 건설 예정 터미널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 규모와 방식은 미확정 상태임

자료 : supplychains.com, 2014.10.8.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 인도 카르나타카주, 민간투자 5개 신항 개발 예정

- 카르나타카주 항만청은 인도 서부에 위치한 5개 신항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임
 - 이들 5개 신항은 Honnavar, Manki, Mavinkurve Basavaraj Durga Island, Belekeri, 그리고 Uttara Kannada지역의 Thadadi에 개발될 예정이며, 카르나타카주 항만청은 신항 개발을 위해 10억 달러의 자본 유치를 희망함
- PPP 방식에 의한 신항 개발은 2014년 카르나타카주 항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개발자는 항만 개발 및 수출입 화물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카르나타카주의 위치 >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 현재까지의 신항 개발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음
 - 500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Honnavar 항의 부지는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 기반을 둔 회사에 8,300만 달러에 임대될 예정임
 - Manki에 글로벌 영농회사인 Renuka Sugars¹⁾가 이미 750만 달러를 투자해 200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항만개발부지 75,000m²를 확보함
 - Mavinakurve Basavaraj Durga Island의 전용항만 개발 제안가격은 최근 1억 달러 수준을 고려중임
 - 개발사인 Ashraya는 3억 2,000만 달러에 Belekeri항 개발을 협의 중임
 - Adani²⁾는 8억 1,900만 달러를 투자해 Thadadi항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9.25.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1) 인도회사로 세계 최대의 설탕 제조 공장 중 하나임.

2) 인도회사로 자원, 물류, 영농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큰 항만을 개발 및 운영함.

물류시장동향

□ 레닌그라드 주 항만, 러시아 총 항만 물동량의 24% 처리

- 러시아 총 항만 물동량의 24%가 레닌그라드 주에 위치한 항만들을 통해 처리됨
- 2013년 레닌그라드 주에서 항만을 통해 처리된 물동량은 143.8백만 톤으로 2000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 교통 복합중심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지역에서 러시아 총 대외무역의 절반정도가 이루어 짐
 - 레닌그라드와 핀란드 남쪽지역 걸프 만 간의 해상과 철도를 통한 복합운송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 지역을 통한 물동량은 2020년의 265.3백만 톤에서 2030년까지 300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레닌그라드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류중심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선하적, 창고, 이종 교통수단간 연계 화물수송 등 복합적인 물류 기능을 갖추게 될 전망임

자료 : www.portnews.ru, 2014.10.9.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harimyi@kmi.re.kr)

□ 중국 텐진항, 안벽 확장계획 발표

- 중국 북부에 위치한 텐진항이 국제 대형 화물선을 수용하기 위해 안벽을 확장할 예정임
 - 안벽은 148km로 확장되며, 추가 건설되는 선석은 71개임
 - 현행 470km²에서 1,590km²로 확장되는 인프라는 국제 화물선이 이용토록 할 예정임
- JOC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항은 시간당 평균 130척을 처리하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항만으로 나타남
 - 이는 2012년 5위에서 상승된 순위임
 - 순위의 상승은 텐진항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안벽 및 선석 확장의 통인으로 볼 수 있음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10.6.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

< 한-러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 비즈니스 포럼 >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가 주관하는
‘한-러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년 10월 27일(월) 09:30 ~ 16:00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 볼룸
- 참가대상 : 극동 물류·해운·건설·인프라 투자 관심업체 등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및 식순	세부 프로그램
리셉션 (09:00 - 09:3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개막식 (09:30 - 10:15)	• 주요 참석자 소개 • 개 회 사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 축 사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 기조연설 : 알렉세이 츠데노프 (러시아연방 교통부 차관)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기념사진 촬영
제1세션 (10:20 - 12:00)	< 제1세션 : 극동 비즈니스 환경 현황과 발전 전망 > • 유라시아 물류 교통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미하일 브라착 / 국가두마의회 물류교통위원회 제1부위원장) • 극동 선진개발구역(TAD) 발전정책과 향후전망 (알베르트 라키포프 / 극동개발부 부국장) • 연해주 내 외국기업 투자사례 및 전망 프로젝트 소개 (알렉세이 에로힌 / Ernst&Young 극동지부장) • 질의 & 토의
오찬 (12:00 - 13:15)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시간 및 식순	세부 프로그램
커피 브레이크 (13:15 - 13:3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프론트
제2세션 (13:30 - 14:50)	< 제2세션 : 극동지역 물류, 인프라 전망 프로젝트 발표 > - 자루비노 복합 신항만 개발 및 보스토치니 석탄 터미널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스베틀라나 실라예바 / Summa Group 자루비노 프로젝트부장) - 소비에트 가반 신항만 경제특구 개발 투자 프로젝트 (유리 부흐라코프 / 소비츠키야 가반 시장) - 블라디보스토크시 해양터미널 대형 쇼핑몰 복합단지 개발 (올렉 테미로프 / Temirov & Partmers 대표이사) - 질의 & 토의
제3세션 (14:50 - 16:00)	< 제3세션 : 극동지역 신규사업 진출 전략 세미나 > - 한국 기업들의 극동 사업 진출사례 및 전략 (명장호/삼일회계법인 이사) - 극동 투자환경 고찰 및 투자 진출시 법적 유의사항 (이승민/지평지성 러시아 변호사)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러 산업·통상 발전 전망 (박종호/KRBC 대표) - 질의 & 토의
폐회 (16:00)	폐회선언

○ 참가 신청

- 참 가 비 : 무료 (점심포함)
- 신청기한 : 선착순 (150명)
- 신청방법 : 별첨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송부 (e-mail: info@krbcouncil.org)
- 문 의 처 : KRBC 사무국 서하늘 과장 (02-561-0305)

KMI 국제물류연구실 송주미 전문연구원 (02-2105-2872)

[E-learning을 활용한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3일(월)~4일(화) 9:00~18:00(2일)
- 장소 : 전경련회관 타워 3층 회의실 '파인'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국제물류협회
- 후원 :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
- 교육 프로그램
 - 11월 3일 월요일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09:20	Registration	
09:20~09:30	개회사 및 환영사	
09:30~09:45	글로벌 물류동향 및 전망	이성우 KMI 실장
09:45~10:00	중견 물류기업의 해양플랜트 물류시장 진출 방안	신석현 우주해운항공 부사장
10:00~10:50	Breakbulk Market Trends	Capt. Arun Ukamanal
10:5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00	Chartering & insurance	Capt. Arun Ukamanal
12:00~13:30	점심	
13:30~15:30	ODC Force and Lever I	Capt. Arun Ukamanal
15:30~15:45	커피브레이크	
15:45~17:30	ODC Force and Lever II	Capt. Arun Ukamanal

- 11월 4일 화요일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09:20	Registration	
09:20~10:40	Proper Blocking & Bracing	Capt. Arun Ukamanal
10:40~10:50	커피브레이크	
10:50~12:00	Cargo Operations of Vessels	Capt. Arun Ukamanal
12:00~13:30	점심	
13:30~15:15	Road Operation	Capt. Arun Ukamanal
15:15~15:30	커피브레이크	
15:30~17:00	Case Study	Capt. Arun Ukamanal
17:00~17:30	질의 응답	
17:30~17:50	Award of certificates	
17:50~18:00	Closing Ceremony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참가신청 : 2014년 10월 30일(목)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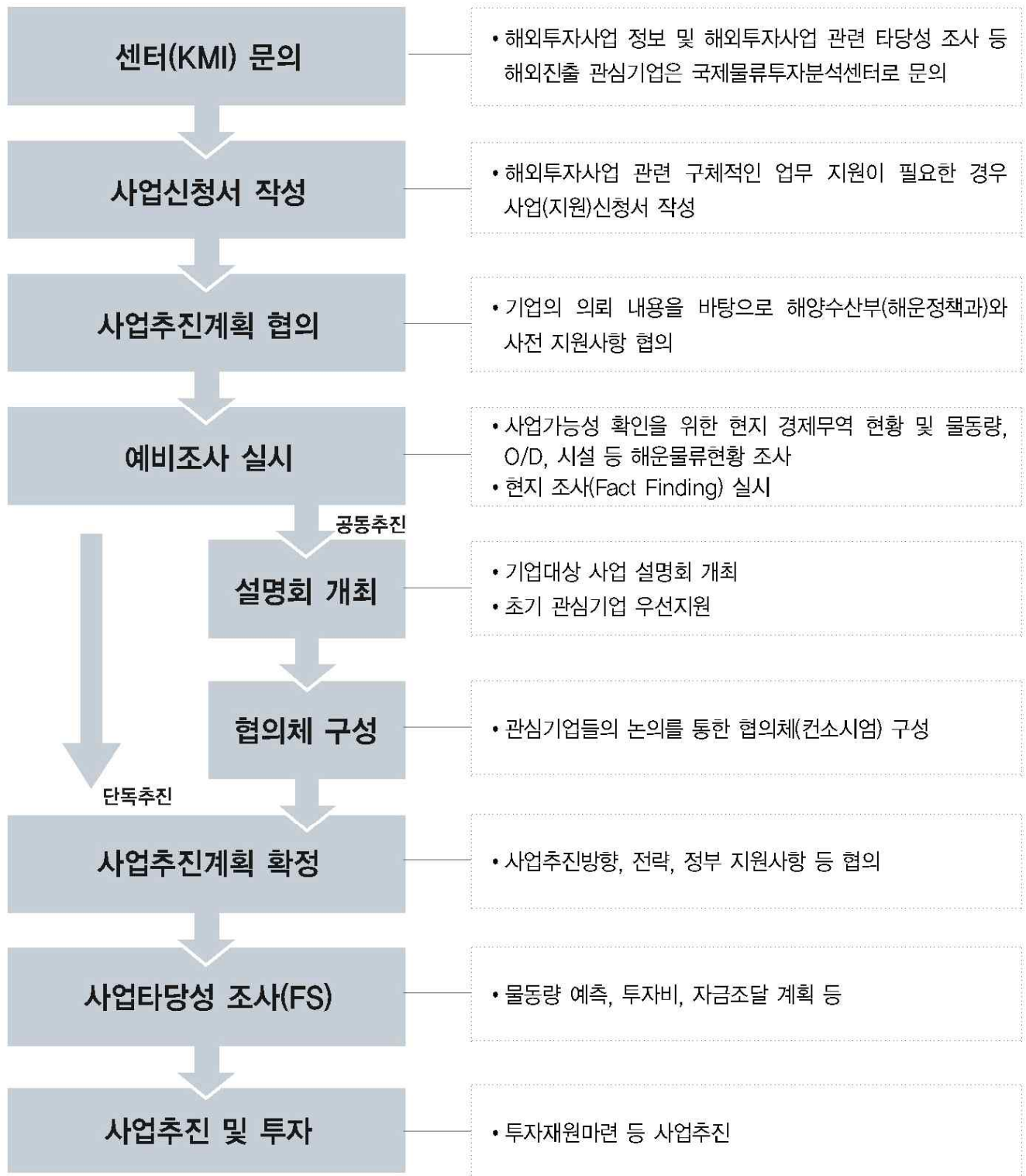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아래 담당자의 이메일로 송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세원 연구원(T. 02-2105-2982, ksw@kmi.re.kr)
- 한국국제물류협회 임택규 차장(T. 02-733-8000, itg@kiffa.or.kr)

※ 본 교육은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워딩, 하역, 운송 등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에게 적합한 워크숍입니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